



회전목마 (92 x 73cm 캔버스에 아크릴)

사랑의 회복

# JEAN-FRANCOIS LARRIEU

장 프랑수아 라리유의 그림은 황홀함과 정겨움의 정취를 발산한다. 옛날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마차나 동물, 화려한 궁전 등은 아름다운 색채와 기하학적 무늬의 조합으로 인해 구체적인 이미지를 간직하면서도, 추상적 무늬로 보이기도 한다. 겹겹이 싸이고 감춰진 이미지를 해독할 때,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순수함을 되찾을 수 있다. 이것이 장 프랑수아 라리유 작품의 매력이다.

글 • 김명애(오페라갤러리스쿨 지점장, 책임 큐레이터) | 도움 및 자료 • 오페라갤러리(02-3446-0070 [www.operagallery.com](http://www.operagallery.com))



**사망으로 괴리하게 인식되는 나무그림은** 오색찬란한 빛깔을 머금고 있고, 멀리 우거져 있는 수림도 마치 색동비단처럼 화려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장엄하여 경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 아주머니들의 화려한 꽃무늬 티셔츠처럼, 요란하지만 소박한 예교기 녹아 있다. 라리유의 그림은 이처럼 황홀함과 정겨움의 정취를 발산한다. 눈을 떼지 못하고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한 눈에 들어왔던 산과 나무, 탁자 등의 이미지 너미에 숨어 있던 아가지기한 추상적 요소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속에서 팔랑개비치는 예상치 못했던 이미지들을 발견하게 된다. 관객의 기억은 저 멀리 어린 시절 눈에 익었던 고향산천의 풍경이나 혹은 외국 여행에서 본 것 같은 장면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마음속 순수를 건드린 작가에 대한 궁금증도 슬그머니 생겨나게 된다.

### 꿈과 희망의 방랑자

장 프랑수아 라리유는 1960년 프랑스 남서부 오프 피레네(Haut Pyrenees)의 주도, 타르브(Tarbes)에서 출생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피레네 산골의 자연과 함께했고, 그는 이곳에서 얻은 아름다운 색채가 풍부한 영감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한다. 작가의 작품에서 줄기차게 '나무'가 등장하는 것도 바로 그의 고향산천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주는 한 사례라 하겠다.

어느 작가처럼 일찍이 미술에 재능을 보였으나, 방년 11세 때 프랑스아 비용 회화 아카데미(Francois Villon Painting Academy) 대상을 수상한 것은 범상치 않은 사건이었다. 장난 삼아 응모해본 아카데미에서 심사위원들은 그를 대상으로 지목했고, 뒤늦게 작가의 어린 나이가 알려지게 되었을 때, 작가도 심사위원도 놀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그들의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어린 라리유에게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었다. 13세가 되었을 때 로마미술대상 수상자인 장 라포르그(Jean Laforgue)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제자가 되어 수년 동안 도제식 교육을 받게 된다. 그 결과는 18세 때 포 미술관(Musee de Pau) 큐레이터가 그의 전시회에 베아르네 미술관상(Musee Bearnais Prix)을 수여할 정도로 성공적인 출발로 이어지게 된다.

성년이 된 라리유는 고향을 떠나 파리로 이주하게 된다. 하지만 파리의 미술계는 그들만의 서클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에게 자연의 색채를 가르쳐준 고향의 자연은 그저 여느 시골 중 하나로 여겨질 뿐이었다. 그의 영재성이 오히려 나이가 너무나 어리다는 이유로 분할 때, 라리유는 파리미술학교에 진학하여 그 서클로 유입되기



아프리카의 아자수 (97 x 130 cm 캔버스에 아크릴)



가의 말처럼, 도시에 대한 정직한 도시를 떠나서 그 도시에 대한 사회적 분열까지 표현하고 있다. 덕분에 그의 작품은 정역지 간수임을 뛰어넘어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있다.

피레네에서부터 시작되어 파리를 정유한 그의 삶의 여정은, 오늘날 전 세계에 걸쳐 폭넓은 팬을 확보할 정도로 널리 확장되었다. 아무런 하연 없이 비순제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두 배, 세 배로 노력했다는 작가의 고백처럼, 상상하게 된 이온 그의 노력은 살롱 도톤느를 비롯하여 프랑스 우수 미술협회의 회장을 연임한 것, 비순제에서 외활동을 통해 두루 빛나고 있다. 현재는 오페라갤러리의 전속작가로서 프랑스 우수의 미술팬을 비롯하여 유럽은 물론 미주, 아시아 지역에서 수많은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하였으며,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운 그의 여러 활동은 베네짓 작가사전(Benezit International Who's Who annuaire de l'art international)에 실려 있을 정도다.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벗어나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가기로 결심한다. 고집스럽게 미술학교 진학을 거부하고, 독학으로 미술활동을 계속해나가면서 수많은 여행과 민남 속에서 예술을 배우게 된다. 눈으로 많은 것을 익혔고, 늘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다니며 기차에서 바라본 시골길의 능선, 해변에 떠 있는 배, 높은 도심의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빌딩들을 부지런히 옮겨 그렸다.

머릿속에 각인된 색다른 이미지들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작가의 아틀리에에서 새롭게 재구성되어 캔버스 위 이곳저곳으로 조화롭게 옮겨졌다. <프랑스의 아침> <마이애미 비치> <전통과 현대의 홍콩> <인도여행> <아프리카 아자수> 등의 작품 제목은 그의 여행이 얼마나 폭넓은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상의 작품들은 그 도시의 이미지에서부터 출발하였지만 “나는 어떤 사물을 바탕으로 하여 그리는 것도 아니고,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것도 아니다. 나는 기억에 의해서 그린다”는 작



미울 축제 (100 x 81 cm 캔버스에 아크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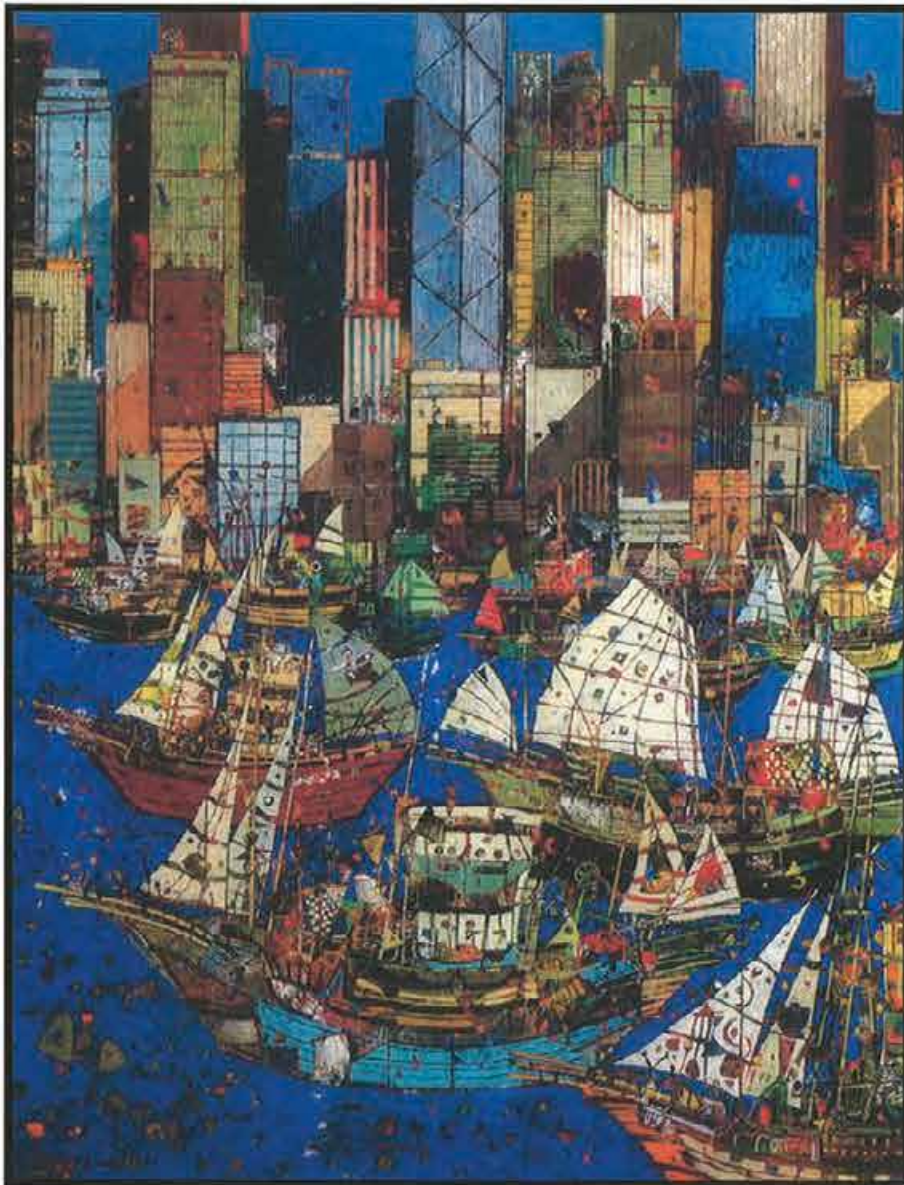


지중해 (81 x 66 cm 캔버스에 아크릴)

### 퍼즐을 맞추는 시간

수많은 만남 중에서 그의 작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자녀들과의 만남이었다. 작가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인생을 새로 바라보게 될 정도로 또 다른 정체성을 확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자녀에게 들려주기 위해 함께 읽은 동화책과 친진하고 순수한 아이들의 피드백은 작가에게 제2의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성과 합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하듯이, 작가는 자유와 낭만이 마음껏 펼쳐지는 그만의 화풍을 확립하게 된다.

옛날이야기에 주로 등장하는 마차나 동물, 둠 지붕을 가진 멋진 궁전과 향신료를 가득 싣고 들어올 것만 같은 화물선 등은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국적 취향을 부추기지만, 그의 그림 속에서 현실적 모티브는 하나의 레퍼토리에 불과하다. 나무·산·집·배·호수·도시·목마 등의 구성요소는 환화에 넘치는 아름다운 색채와 오묘조밀한 기하학적 무늬의 조합으로 인해 구체적인 이미지를 간직하면서도, 추상적 무늬로 보이기도 한다. 아크릴과 유화 물감을 섞은 표현방식도 화면에 마치 벨벳 천과 같은 특성을 부여하여 신비감을 더한다. 마치 클레나 미로의 그림처럼 낮은 왈츠가 흐



전통과 현대의 홍콩 (146 x 114 cm 캔버스에 아크릴)



파리의 지붕 (130 x 162 cm 캔버스에 아크릴)



프루방스의 휴가 (80 x 80 cm 캔버스에 아크릴)



러나올 것 같은 그의 화면은 음악적 멜로디마저 갖추고 있다.

관객의 눈 속에서, 화면 구석구석을 장식하고 있는 귀여운 이미지들은 마치 오징어나 해파리 떼의 이동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막을 가르는 코끼리의 무리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중세시대 기사들의 투구 같기도 하며, 우주선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시대와 배경을 가늠할 수 없게 만드는 환상적인 이미지들은 현실의 평범한 장면을 꿈과 환상의 세계로 바꾸어놓는다. 어떤 관객은 우거진 수풀 속에서

이런 시절 잡았던 기재를 발견하기도 하고, 나무들 뒤편으로 꼬리가 긴 비단뱀이 숨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끝나지 않고 계속된 천일야화와도 같이, 라리유의 그림은 하나를 놓고서도 관객들 저마다 서로 다른 해석과 상상을 마음껏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마치 상징문자와도 같이 비밀스런 이미지로 가득한 화면을 잠시 응시하면서, 겹겹이 싸이고 숨겨진 이미지들을 해독할 때,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순수함을 저절로 되찾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그 경험 속에서 잃어버렸던 순수에 대한 믿음과 사소한 것들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 거기에 바로 라리유 작품의 힘과 매력이 있다. ㉞